

메디프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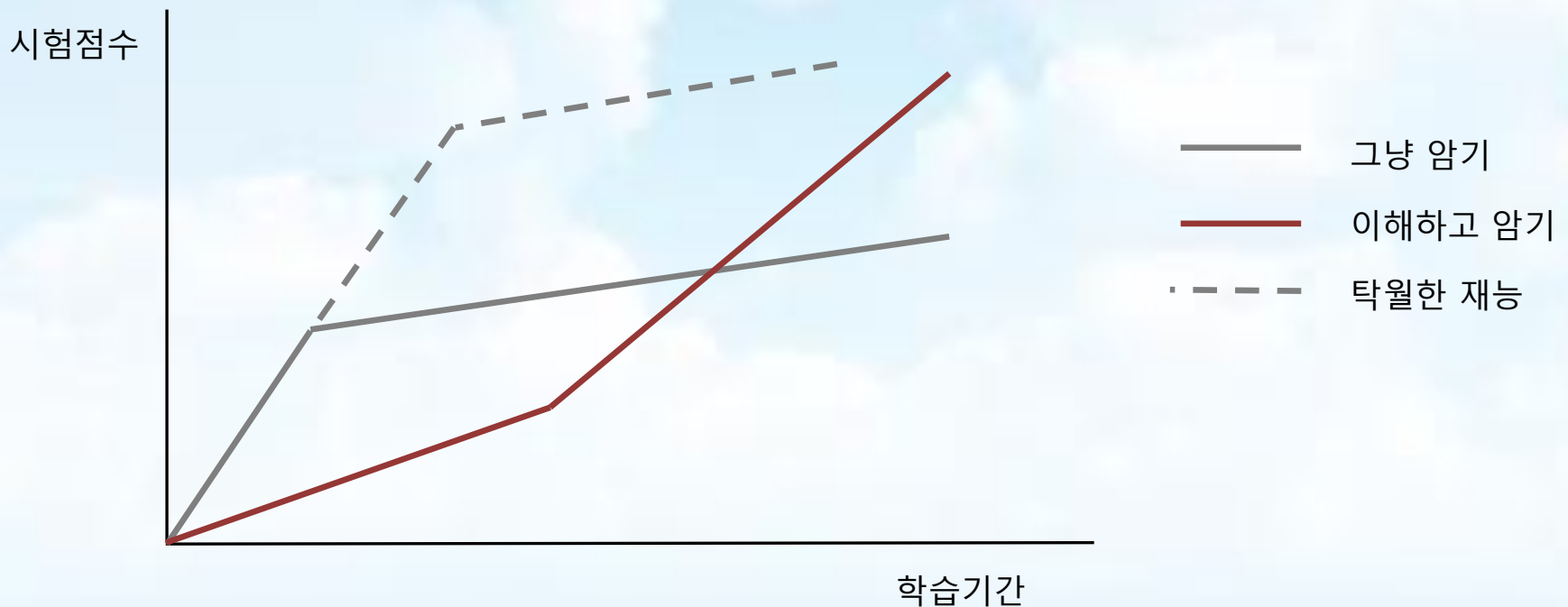
2021년 의사국가고시 대비 설명회 (내과, 실기)

2021년 1월

*medi*preview
Since 2003

의과대학 공부

1.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함. 적합한 교재의 부재
2. 이해와 암기의 병존
3.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의과대학 공부

1.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함. 적합한 교재의 부재

2. 이해와 암기의 병존

3.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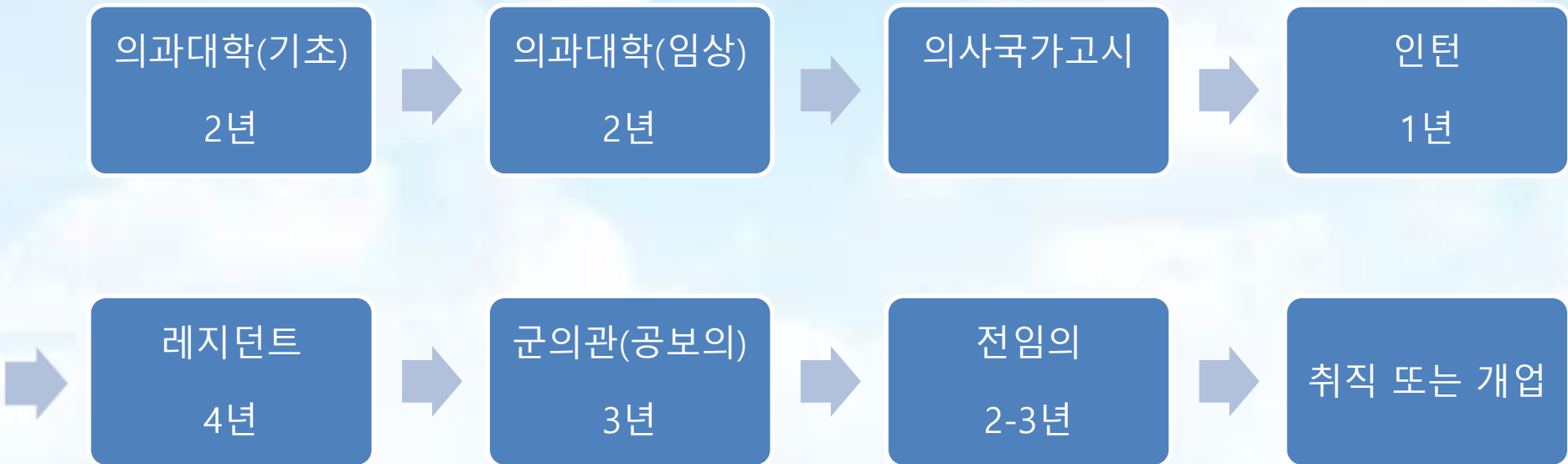
- 큰 그림 속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분류
- 환자의 진단은 수없이 많은 질환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에 따라 구별해 가는 과정인 경우가 많음
- 감염분과와 같이 분류가 공부의 핵심인 파트도 있음

Medipreview의 내과 강의

- 해리슨 해설 강의
- 특히 표와 flow chart 등 figure 중심의 강의
- 국가고시와 임상의학종합평가에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질환 위주로

의과대학 공부

1.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함. 적합한 교재의 부재
2. 이해와 암기의 병존
3.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2021년 의사국가고시 전망 및 공부전략

최근 의사국가고시의 경향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도 많이 출제

사진의 경우도 정상 소견이 많이 제시됨

전공의 선발 시험도 비슷한 경향으로 변하는 중임

역대급으로 쉬웠던 국가고시: 앞으로는?

참고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전체 3,163명의 응시자 중 3,100명이 합격해 합격률 98.0%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12월 18일 발표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는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 86.3%의 합격률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60점 만점에 347점(96.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고려의대 신정우씨가 차지했다.

85회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 필기 합격률: 98%
- 평균 점수: 80/100 (288/360)
- 지난 10년간 평균 점수는 70~75 점 사이

2022년 의사국가고시: 대대적인 변화

2022년부터 의사 등 국가고시 필기 '컴퓨터평가' 도입

김민건 기자 2019-12-24 11:14:58

가 가

- ▣ 국시원, 의사시험 첫 적용 → 치과·한의사로 단계적 확대
- ▣ 내년부터 CBT전산프로그램 개발 도입 준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의사 등 국가고시 필기 시험에 PC기반 컴퓨터시험이 도입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을 현행 지필시험 방식에서 데스크탑PC 기반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 CBT)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2022년 제 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CBT시험을 첫 도입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2023년 제 75회 치과·의사와 제 78회 한의사 국가시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2020년부터 CBT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모의시험 시행 등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CBT 시험 도입 초기 국시는 타기관 시험장을 활용해 치뤄진다. 국시원은 "산업인력공단 또는 특성화고(상업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 체계를 갖췄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상설시험장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CBT는 안정성이 검증된 선진화된 시험방법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내 주요 시험기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국시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CBT시험은 종이시험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문제 등 실제 임상 상황에 가까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시험방식 변화는 평가 수준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CBT 컴퓨터 평가
- 종이시험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문제도입
- 실기: CPX와 OSCE 통합

2021 의사국가고시 준비 방법

기존 의과대학생들의 잘못된 믿음을 따르면 안 된다.

: 국시 문제집 두 번만 보면 된다? 문제와 답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

: 의사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전문의 시험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입시에서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시험으로의 변화와 비슷함!

질병 위주의 단편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증상에 따른 접근 필요

: 의대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 부족함. 마땅한 교재가 없음.

최종진단이전 감별진단 중간단계에서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됨

실기시험의 경우 단기간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암기 위주의 시험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꾸준한 준비가 필요.

피해야할 공부법

- 단순 암기
 - 암기 천재가 아니라면 한계가 금방 오며 장기 기억으로 가기 힘들
 - 단기 시험 성적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피해야 할 공부법
-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태도
 - 의대 공부를 평생해도 쉽지 않은 방법
- 문제집 문제만 풀겠다
 - 객관식 문제를 맞춘다고 내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님
 - 똑같은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음

내과 전반적 학습 전략

내과 공부의 특징

양이 많다.

360문제 중 140~150개

외과, 소아과 등에서 완전히 겹치는 내용까지 포함 시 절반

중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양한 분과 (분과별로 공부 방법들이 달라야 함)

내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중요한 병이 많이 나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한 번에 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함.

- : 적어도 3번은 공부를 해야 함
- : 중요한 질병은 반복적으로 보면서 확실히 해야 함 (자세하게)
- : 중요성이 다소 낮은 질병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

반드시 나오는 질병들은 초기에 확실히 정리를 해 두자.

증상 위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됨.

: 실기시험 전에 해 두면 실기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됨.

내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국시문제, 임종평 문제를 참고하자.

하지만, 문제와 답을 그대로 보면 안 됨.

그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공부해야 함.

메디프리뷰 프로그램 소개

메디프리뷰 프로그램 - 필기 강의

단순한 기출문제 풀이를 벗어나 증상 위주의 접근을 통해 문제풀이 해설 해리슨(교과서)의 그림과 표 해설을 통한 새롭게 출제 가능한 문제 해설

- 2월: 내과 강의 (해리슨의 그림, 표 등을 통한 내용강의)
- 여름: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 임상의학종합평가 문제, 예상문제 등)
- 11, 12월: 최종 정리 강의

메디프리뷰 프로그램 - 실기 특별반

총 20주 + 3주(산부인과, 정신과) 과정의 프로그램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본인을 평가할 만한 명확한 지표가 없음.

본인이 실패한 이유 또는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개인별로 실패한 이유들이 달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

- 주 1 회 수업(2-3시간) 및 주 1회 실습(3-3시간30분) (총 2일)
- 실습 후 바로 피드백
- 단순한 CPX 강의가 아닌 증상학을 중심으로 한 내용 정리 포함

메디프리뷰 프로그램 - 실기 특별반

국내 재학생 반과 예비시험 반을 분리하여 진행

예비시험 반의 경우 1차 필기 시험 중 기초 부분에 대한 지원 포함

2월 중순 바로 시작

기본 20주 코스

산부인과, 정신과 추가 3주

7월 이 후 본시험 대비 추가 수업 원하는 학생들 한하여 추가운영

신청

재학생 실기반

예비시험반

모집: 지금부터 선착순

010-2053-0806, heesukmd@gmail.com

학생이름, 학교, 올해 봐야하는 시험
작년 시험 응시여부 및 결과